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진부장례식장서 재난 대응 훈련

✎ 우정연 기자 | ⓒ 승인 2023.10.29 18:37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사진=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강원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 시설별 재난 상황을 가정해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자체 소방 훈련에 나섰다.

29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26일 진부면에 있는 진부장례식장에서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했다.

이 훈련은 각종 대형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재난 대응 종합훈련이다.

진부장례식장에서 원인 미상의 방화 등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훈련 진행 중 공단 내 훈련지원반과 각 사업장 간 연계로 재난 초기 대응부터 수습, 복구까지 모든 과정을 신속히 처리하고 공유하는 능력을 향상했다.

진부장례식장은 내부 장례시설을 포함해 주변에 체육공원, 농기계 임대 민원실, 공연장 등이 있어 초기 재난 대응이 중요한 장소로 꼽힌다.

이날 공단 임직원과 시설별 시설관리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여해 초기진화, 이용객 대피 유도, 인명구조 등 재난 대비훈련, 직원들의 소화기·옥내 소화전 위치 파악 및 사용 방법 숙지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박현창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실제로 공단 내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이번 훈련을 통해 침착하고 체계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게 됐다”며 “고객과 직원 안전을 위해 실제 상황과 같은 각종 훈련, 교육에 나서 직원들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사진=평창군시설관리공단]



우정연 기자 woos2705@naver.com